

전시명: 이불: 《PRINTS》
전시 일정: 2024. 05. 21(화) - 06. 15(토). 화 - 토, 오전 11시 - 오후 6시
장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23길 10, BB&M 갤러리
주최: BB&M 갤러리 (공동 대표: 제임스 리 & 허시영)
문의: 송고은 실장 (song@gallerybbm.com, 010 3434 3674)

ABOUT THE EXHIBITION

BB&M은 5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불 개인전 《PRINTS》를 개최한다. 판화 매체로는 처음으로 작가의 주제의식과 시각언어에 기반한 5개의 연작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초청해 판화 전문 레지던시를 운영해온 싱가포르 STPI 크리에이티브 워크숍과 협업해 제작한 신작을 소개한다. 또한 전시에서는 1997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요 인터뷰 모음집 『Lee Bul: In Her Words』를 함께 공개한다. 올해 9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정면에 설치될 작가의 파사드 전시를 앞두고 출간되는 본 선집은 약 40년간 펼쳐 온 그의 작품 세계와 예술적 실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의 판화 작품은 스크린 및 금속박을 활용해 판화 기술의 혁신적 가능성을 탐구하며, 구리 분말이나 철 가루와 같은 비전통적인 재료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아름다움과 쇠퇴, 기술과 실패, 유토피아를 향한 꿈과 역사적 트라우마 등 서로 상반된 주제의 이면을 다루는 이불의 대표적인 바이오모픽 조각과 건축적 설치 작품의 개념과 형태를 반영한다. 특히, <Untitled - CC>(2023) 시리즈는 작가의 사이보그 조각을 이차원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구리 분말이 산화되며 발생하는 독특한 푸른 색감과 물성이 만들어내는 추상적 이미지가 돋보이는 작업이다. 미세한 분말이 일으키는 화학적 반응은 흰색의 사이보그 외형에 감춰졌던 기계적 신체의 내부를 상상하게 한다.

<Untitled - SF>(2024) 연작 역시, 이불의 주요 설치 작품인 <Souterrain>(2012/2016)의 주제와 시각적 요소가 바탕이 되었다. 수천 개의 거울 조각으로 이루어진 이 설치 작품은 유토피아의 이데올로기와 맞물린 인류사의 흥망성쇠를 하나의 아방가르드적 건축 구조로 구현시켰다. 'Souterrain'은 지하 구조를 일컫는 단어인데, 작품 역시 어두운 터널과 같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미래적 비전을 떠올리게 하는 메탈릭한 외부와 대비되는 작품의 내부는 제한된 빛과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구조를 통해 관객에게 극적인 공감각을 선사한다. 이러한 인지적 감각은 판화에서 여러 형태로 파편화된 패턴과 홀로그램, 금속박의 겹침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깨어진 시공간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이 시리즈는 세밀하게 교차시킨 다양한 레이어와 색감들로 서로 유사한 듯 전혀 다른 풍경과 분위기를 자아낸다.

과거에서 미래를 발굴하는 고고학적 개념의 차용과 여러 겹의 층위와 이질적 재료의 혼용은 작가의 대표적인 평면 작품 <Perdu>(2016-)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Perdu>가 조각적으로 접근한 입체적 회화라면 이 판화 연작은 삼차원의 공간을 한 장의 지면 위에 고도로 압축시킨 섬세한 종이 작업이다.

이러한 세밀함은 <Untitled - SI>(2023)와 <Untitled - PI>(2023)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두 시리즈는 작가가 STPI에서 레지던시 기간 중 제작한 드로잉과 콜라주를 바탕으로 했다. <Untitled - PI>는 부드러운 색감의 조합으로 인해 언뜻, 꿈속의 환상적 풍경을 그려낸 듯 보이지만 실제 핵폭발의 버섯구름과 실패한 모더니즘의 서사에 등장하는 기계적 구조의 실루엣을 지니고 있다. <Untitled - PI>의 열은 파스텔 톤과는 상반된 단색의 어두운 철 가루를 사용한 <Untitled - SI>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녹슬어가는 철의 재료적 특성과 수없이 반복되어온 과거의 역사적 시간을 연결 지어 오늘의 현실을 비유하려는 듯 보인다. 새로운 판화적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과 달리, 전통적인 에칭 기법을 충실히 따른 <Untitled - WE>는 일련의 신작이 포착한 디스토피아적 풍경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제플린 비행선의 모습을 담았다. 이 물체는 작가의 또 다른 주요 조각 설치 작품인 <Willing to be vulnerable - Metalized Balloon>(2015-)에 등장하는 힌덴부르크 비행선으로 이불의 작품 세계에서 유토피아를 향한 진보주의적 프로젝트의 신념을 표현하는 동시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필연적 오류와 역사적 트라우마를 상징한다.

이렇게 주요 조각 작품과 그 세계를 밀접하게 반영하고 있는 이불의 판화는 전통적인 인쇄 기술과 종이 매체를 통해 모더니즘의 극적인 시대상과 예술, 과학 및 기술의 융합을 탐색한다. 과거와 미래의 기술이 집약된 다양한 기법적 활용이 돋보이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끊임없는 탐구 의식을 엿보게 하며 앞으로도 이어질 새로운 시각적, 재료적 실험과 매체의 확장을 기대하게 한다.

ABOUT THE ARTIST



이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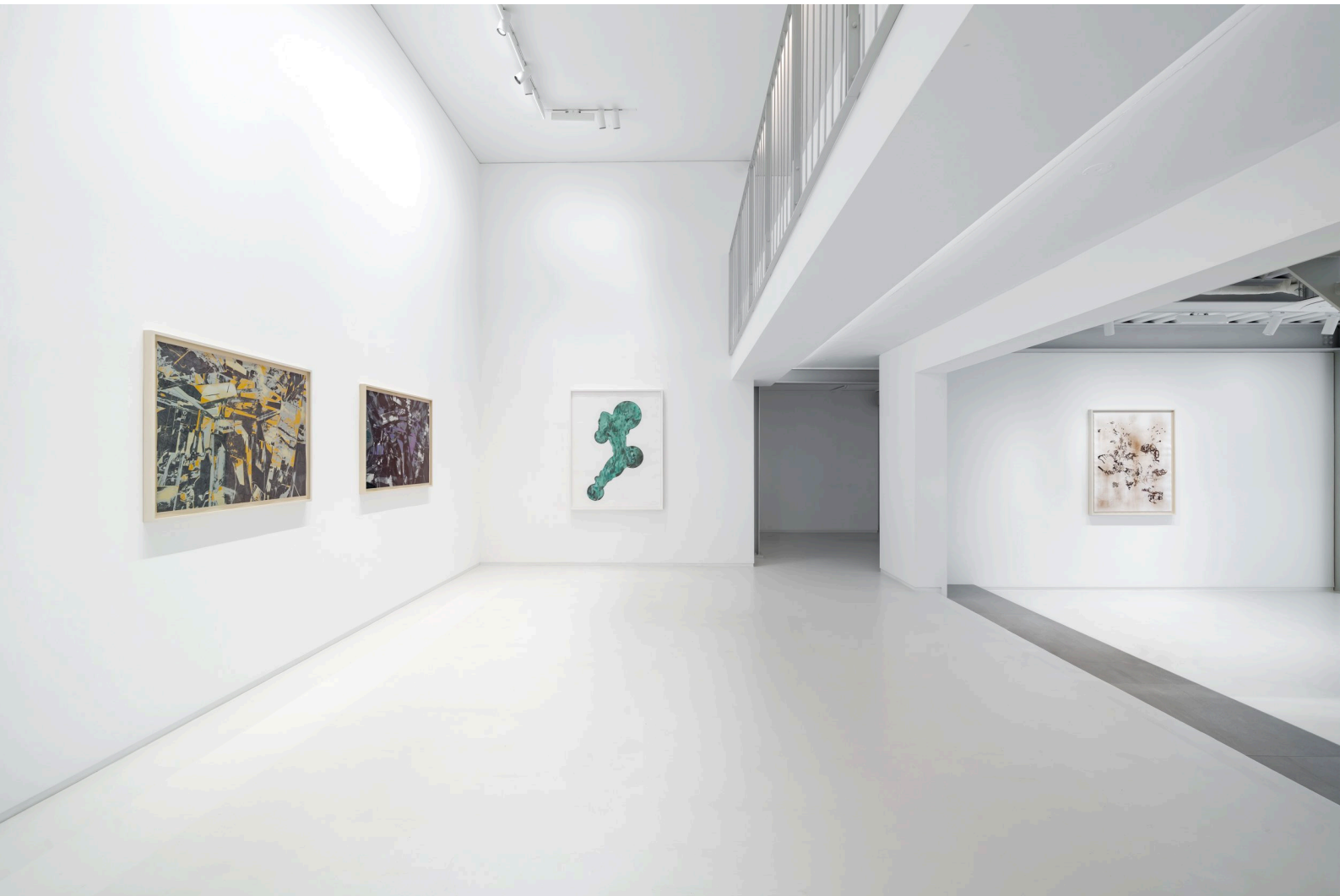
동시대 최고의 한국 현대미술가로 널리 알려진 이불은 뉴 뮤지엄(뉴욕, 2002), 호주 현대 미술관(시드니, 2004),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파리, 2007), 모리 미술관(도쿄, 2012), 팔레 드 도쿄(파리, 2015), 헤이워드 갤러리(런던, 2018),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베를린, 2018) 등 세계적인 주요 미술관에서 연이은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하며 국제 미술계의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다.

예술가로 약 40년의 시간을 거치며, 전 세계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이 된 작가는 초기 퍼포먼스의 도상 파괴적 태도를 지나 유토피아적 모더니티의 진보주의적 시도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통해 예술적 개념과 경계를 허무는 공감각적 설치, 조각, 회화 등으로 끊임없이 작품 세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불의 작품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뉴욕), 구겐하임 미술관(뉴욕),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워커 아트 센터(미네소타), 테이트 모던(런던), 대영박물관(런던), M+(홍콩), 모리 미술관(도쿄), 리움 미술관(서울),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서울), 국립현대 미술관(서울)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 소장되어있다. 또한 작가는 2022년 시카고 예술대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루트 바움가르트 상(2023), 호암 예술상(2019), 프랑스 문화부 문화예술공로훈장 오피시에(2016), 광주 비엔날레 눈 예술상(2014) 및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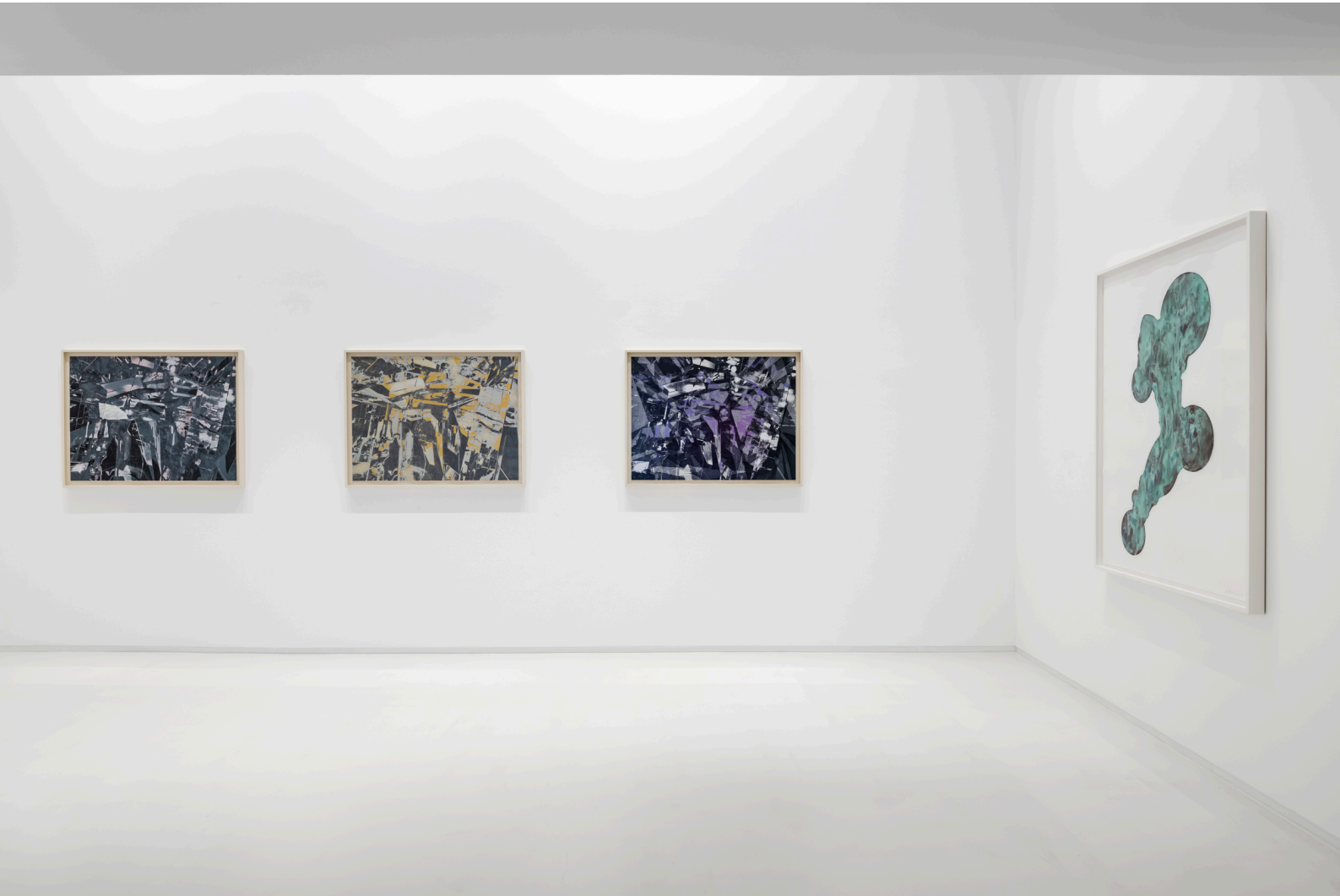
이불은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파사드 커미션에 선정되어 2024년 9월 작품 공개를 앞두고 있다.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 *Lee Bul: Prints*, BB&M, Seoul, 2024. Works by Lee Bul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 *Lee Bul: Prints*, BB&M, Seoul, 2024. Works by Lee Bul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 *Lee Bul: Prints*, BB&M, Seoul, 2024. Works by Lee Bul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 *Lee Bul: Prints*, BB&M, Seoul, 2024. Works by Lee Bul

SELECTED WORKS



Untitled - CC, 2024

Screenprint with copper powder on paper

Variation 4 of 12

146 x 112 cm (150.5 x 115.5 x 6 cm framed)

SELECTED WORKS



Untitled - SFLBL, 2023
Screenprint and foiling on paper
Variation 4 of 4
81 x 108 cm (87.8 x 114.8 x 4.5 cm framed)

SELECTED WORKS



Untitled - SFLP, 2023

Screenprint and foiling on paper

Variation 3 of 4

81 x 108 cm (87.8 x 114.8 x 4.5 cm framed)

SELECTED WORKS



Untitled - PI, 2023

Photo etching and intaglio on paper

Variation 3 of 12

123.5 x 101.5 cm (130.3 x 108.3 x 4.5 cm framed)

SELECTED WORKS



Untitled - SI, 2023

Screenprint with oxidized iron filings on paper

Variation 4 of 12

113 x 88 cm (119 x 95 x 4.5 cm framed)



ABOUT THE GALLERY & THE PRINCIPALS

2009년 제임스 B. 리가 설립한 아트 컨설팅 회사로 출발한 BB&M은 이불, 임민욱, 박찬경, 배영환 등 현재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을 발굴하며 이들의 다양한 전시와 프로젝트를 총괄해왔다. BB&M 갤러리는 이러한 기존의 활동을 기반으로 제임스 B. 리와 주요 갤러리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아 온 허시영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간이다.

BB&M은 2021년 10월,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아온 동시대 최고의 한국 현대미술가 이불의 개인전으로 개관했다. 갤러리 전속 작가로는 이불을 포함해 한국 현대미술의 각 장르와 매체의 선두적 위치에 있는 임민욱, 배영환, 김희천, 우정수, 탁영준, 성시경 등이 있으며 MoMA, 휘트니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며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알렉스 도지(Alex Dodge)와 특유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미코 벨드캠프(Miko Veldkamp)가 있다.

제임스 B. 리는 아트뉴스(뉴욕), 플래시 아트 인터내셔널(밀라노), 아트 아시아퍼시픽(홍콩) 등에서 필자로 활동했으며 PKM 갤러리 파트너, 아트선재센터 전시디렉터 그리고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전시 부장을 역임했다.

허시영은 갤러리현대, PKM 갤러리, 갤러리 바톤 등에서 디렉터와 파트너로 오랜기간 활발히 활동해오며 리암 길릭(Liam Gillick),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 토마스 스트루스(Thomas Struth),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그리고 단색화의 거장 윤형근 등의 전시를 총괄했다.